

숲 정 이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 14, 21).

부활 제6주일

제 1독서 : 사도 8, 5-8, 14-17

제 2독서 : 1베드 3, 15-18

복 음 : 요한 14, 15-21

강론

“주님을 사랑한다면...”

박기준 신부 / 고창 천주교회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와의 약속은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으로 여길 것이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에 관심이 없거나 약속은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닐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얼마 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아버지의 품에 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다 지킬 것입니다. 아버지께 청하여나 대신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당신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할 것입니다. ... 내가 당신들을 고아들처럼 버려두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꼭 당신들에게 돌아옵니다” (요한 14, 15-18)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 따른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실제로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계명을 짐스럽고 귀찮고 나를 속박하고 거치장스러운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지요?

사랑은 말이나 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고 행동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실천없는 말뿐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바치는 것만으로 사랑의 덕을 닦는 것이 못되며 “당신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합니다”(요한 13, 14)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체적인 행동으로써 하느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계명인 사랑의 실천에 충실히 임해야 하겠습니다.

소리

“나무가 말한다면”

하필이면 계절의 여왕 5월달에 ‘5·16’과 ‘5·18’이 끼어들었을까. ‘5·18’은 광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된지도 오래다.

돌이켜 보면 평화적인 학생시위가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사태’가 되었고 시민항쟁으로 번지자 정규사단병력을 동원해 ‘평정’된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이다.

그 무렵의 광주시민이나 청년학생들이 바라던 바는 한마디로 요즘 수준 정도의 문민정부의 수립이었다. 그때 지역 출신의 한 정치지도자가 유력한 집권 후보자로 기대를 모았던 것이 당시의 지역적 특수성이었을 뿐이다.

그후 몇 년 동안 ‘광주’는 마음놓고 입에도 올리지 못하는 금기사항이었지만 이제 이름만이라도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이 되었다.

올해는 처음으로 광주시청이 기념행사비도 3천만원을 5·18 관련 단체에 지원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세상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지금쯤 80년 5월의 광주를 모르는 이는 드물터이다. 아무리 감추고자 해도 진실은 빛과도 같아 언젠가는 틈 사이로 비쳐나오기 마련이 아닌가.

그때 십여년생이던 금남로변 은행나무들이 지금은 수령 20년도 훨씬 넘은 큰 나무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 5월을 지켜봤던 은행나무들이 요즘 한창 녹음을 준비하며 속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만 같다.

“그때 숨진 젊은이들이 너무도 가여워. 그런데 원혼들을 달래줄 셋김굿판은 왜 여태껏 안 벌어지는지 모르겠어. 지금이 문민정부시대라는데...” **[신]**

숲정이 산책



성서교실 28

“아브라함은 사라를 막벨라에 있는 동굴에 안장하였다” (창세 23, 1-20)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두 가지 커다란 약속을 하셨다. 그것은 후손을 많이 하겠다는 것과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첫번째 약속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사를 낳아줌으로써 실현되었고, 아브라함이 이 아이를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임으로써 확인되었다. 그리고 위 이야기에서 두번째 약속인 땅의 소유가 상징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다시는 물릴 수 없는 방법으로 헤브론 동쪽에 위치한 땅을 삼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땅을 사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사라의 죽음이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안장시킬 수 있는 땅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산 헤브론땅은 유다 남쪽 예루살렘에서 약 100여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성조들 가운데 베들레헴에 묻힌 라헬만 빼고 모두 이 막벨라 동굴에 묻혔다. 사라를 위시해서 아브라함, 이사악과 레베카, 야곱과 레아가 다 이곳에 묻혔다. 현재는 막벨라 동굴 위에 거대한 회교 회당이 서 있는데 하람 알 칼릴, 곧 ‘친구의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친구였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2절에서 아브라함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주검 앞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통곡하던 당시의 장례 풍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몸붙여 산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그곳 원주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세력있는 귀인’이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하느님의 왕족, 또는 하느님의 뽑힌 자’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그 지역 사회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땅을 사는데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그 지역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다. 에브론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주민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떳떳하게 제값을 주고 에브론의 땅을 샀다. 은 400세겔은 큰 돈이다. 예레미야가 밭을 살 때 지불했던 돈은 불과 17세겔에 지나지 않았고, 오므리왕이 사마리아 전체를 건설하기 위해 샀던 지역도 다 합해서 6,000세겔뿐이었다.



막벨라 동굴

아브라함은 거저 주겠다는 에브론의 말에도 흥정을 하지 않고, 달라는 금액을 모두 지불한다. 이는 소유권을 분명히 해두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과 아내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이제 헷사람의 땅이 완전히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어오게 되었다고 밝힘으로써 상거래의 엄격한 규칙을 강조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묘지로 만든 이후 그의 후손들도 이곳에 묻히게 된다.

이사악을 번제로 바치라는 가장 큰 시련 이후 하느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내리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지막 인생길을 준비하는 일만 남았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약속해주신 가나안땅에 묻힐 자리를 마련해 놓고 며느리를 맞아들인다.

한평생 온갖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을 굳게 믿고 곧은 길을 걸어온 노령의 아브라함! 비록 땅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자기 당대에 보지 못했지만, 그것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하느님을 원망하는 일 없이 조용히 여생을 보내면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가고 있다.

할 티 생 수
 청주교구 미원 성당 샘플
 김 일 수(요 셉)
 소 화 숙(수산나)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개업
공간 장식
 커튼·카페트·홈패션·바닥재
 김 학 권(베 드 로)
 김 향 초(크리스티나)
 유진청하맨션(우전 성당 입구)
 224-4128

지붕·판금공사 면허업체
이 용 상 사
 칼라 아스팔트 씬금(특수표준)
 성당 동판 지붕공사 전문
 이용길(베드로) 장해경(레지나)
 (0653) 54-9948
 FAX 856-8269

패션 부업 가구
파란 들
 영업사원 모집
 박 대 식(요 셉)
 전일삼호신용금고 앞
 76-9346

잡간

“살아 있는 먹거리”

유치원 어린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랑 고추, 옥수수 등을 심는데 어린 새싹을 잡고 정성스레 흙을 덮어주는 광경은 한쪽의 그림이었다. 흙을 밟으면 이불 위를 걸어가듯 걷는 한 어린이의 표현은 신비스러움 그 자체였다.

신대인 성당 동막 공소에서 어린이들이 임대한 농토에서 자연학습을 하던 모습인데 T.V 방송국에서 취재하던 중이었는데도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연학습에 임했다. 동막 공소에서는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을 위해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지어준다. 어린이들이 농사에 참여하여 농작물의 성장 과정과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20평에 호박, 옥수수, 수박, 참외, 땅콩 중에 한 가지를 심어 어린이들이 수확할 수 있도록 관리해준다. 회비는 평당 만원씩 20만원이다. 소풍이나 캠프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있다.

일반 가족들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가족회원은 10평에 고추, 부추, 상치, 봄무우, 실파를 한 줄씩 파종하여 6월부터 수확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지어준다. 물론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으로 말이다. 회원은 농민들이 지어 놓은 농산물을 직접 찾아와 자기 밭에서 채취해간다. 회비는 평당 만원씩 일년에 10만원이다.

농민들은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소비자들은 청정한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생명운동이다. 내 가족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 농촌도 살리고, 죽어가는 땅을 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뜻이 있는 분들에게는 ‘살아 있는 먹거리를 지어드립니다’라는 책자를 보내드린다.

교구 소식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5월17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넉키와 지노.

1. 재무 평의회: 5월20일(목) 오전10시 교구청.
2. 감사 인사: 지난번 바자회 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진동 본당 교우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고산 본당 교우 일동-
3. 바오로 축제(홍보주일을 맞아): 5월24일-29일 성바오로 서원(0652)252-3398.

※축! 영명: 18일(성에릭) 윤에릭 신부님.

- **성소모임** 전교가르멜수녀회(피정): 5월23일 오전9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0652)74-9262.
인보성체수도회: 5월23일 오후1시30분 본원(0652)84-3231.
가리따스수녀회: 5월23일 오후2시 신동 성당 수녀원(0653)54-2636.
예수고난회: 5월22일 오후3시 광주 본원(062)571-5004.
한국외방선교회: 5월23일 오후2시 광주 가톨릭센터 606호 (02)923-1946.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가능하면 큰 용량으로

상하지 않을 물건들은 가능하면 큰 용량으로 포장된 것을 구입합시다. 작은 포장보다 값도 저렴하고 실속도 있음을 재인식합시다.

요십이 (1029) 김병오



고산 바자회 당첨 경품권

- 대상: 13031
- 특등: 07097
- 1등: 44824
- 2등(2명): 05487, 16501
- 3등(3명): 20871, 36956, 12579
- 행운상(100명): 841, 941
- 다행상(100명): 440, 214

바오로 축제

(세계 홍보주일을 맞이하여)

- 일시: 5월24일-29일
 - 특전: 책 20% 할인
시청각 매체 10% 할인
선물 증정
- 성바오로 서원(0652)252-3398

오시어 함께 기뻐해주십시오!

장순례(수산나) 어머니 팔순 잔치

- 때: 5월22일(토) 오전11시-오후5시
- 곳: 전주 코아호텔 무궁화실
- 모시는 사람들: 문대현·문정현 신부
문규현 신부·문세현

태화 신발 백화점

신사화·숙녀화 } 총판매장
아동화·특수화 }
김문식(베드로)
심점순(데레사)
풍납문←→송약국 사거리
☎ 82-3118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범석(콜베)
팔달로변 덕진 성당 옆
☎ 72-2665
75-3533

산 농 서 실

고영선(마태오)
송춘섭(로사리아)
· 전교사거리←→병무청사거리
· 기린B/D(기아차 전시장) 3층
☎ 88-5580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피정

일시: 5.22(토) 14시-23(일) 17시
장소: 부산 부곡동 수녀원
대상: 수도생활과 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준비물: 미사, 필기, 세면도구
신청: (051)514-1773, 회비: 6천원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실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1. 사목회: 신부님 은경축 행사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성모의 밤: 29일 7시30분.
 3. 모임: ①천사의 모후(오늘 장엄미사 후)
②여성 연합(18일 어머니미사 후)
③재속 행재회(22일 후 2시)
- ☐ 지난주 봉헌금: 959,720원 ☐ 교무금: 1,038,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1. 레지오 옥외 행사: 19일(수요일) 오전 9시30출발-부안.
 2. 홍보주일 2차 헌금: 다음주일(23일)
 3. 성모의 밤: 25일(화요일) 저녁 7:30(유인물 참조)
 4.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 7:30(11일부터)
 5. 회합: ①성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부녀회-20일 오전 10시
③빈첸시오회-22일 오전 10시
- 금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장세환 씨 부부
봉헌-김응식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정동민 씨 부부
봉헌-김영기 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566,500원 ☐ 교무금: 1,084,0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욱

- ◎ 주의 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23일(주인) 오전 10시30분-외암리.
1. 성모의 밤: 29일(토) 저녁 8시-성모님께 드리는 편지·꽃·초 봉헌.
 2. 모임: ①성가정회, 청년회-공식미사 후 ②울드레아-22일(토) 저녁.
 3. 미사시간 변경: 토요일 특전미사 저녁 7시로.
 4. 성소 후원회 봉사자 익명: 회장-강덕용, 총무-이옥동.
 5. 주일미사 참여와 정성스런 기도과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주일미사에 빠지지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6. 차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한동욱 ②김연순
봉헌-유순천 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302,360원 ☐ 교무금: 122,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종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 부활 제6주일!
1. 성모회: 5월16일(오늘) 공식미사 후.
 2. 전례부 모임: 5월20일(목) 오후 8시.
 3. 성모의 밤 행사: 5월22일(토) 오후 7시30분.
 4. 성지 순례: 5월28일(금) 서울, 칠두산 성지, 세남터
 5. 공중전화 사용상 주의: 전화사용시 불량주화를 사용하여 고장 이되오니 절대 불량주화 사용금지 바람.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목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축! 건진.
- 오늘 건진성사 받으신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가정방문: 5월 19일-20일.
 2. 봉성체: 5월 22일.
 3. 청소 봉사: 4구역 1반, 2반, 3반.
 4. 성모의 밤 봉헌: 284,900원
- ☐ 지난주 봉헌금: 628,700원 ☐ 교무금: 644,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영 태

- ◎ 부활 제6주일.
1. 금주: ①초등부 주일학교 소풍(광주 신학교)
②돈보스코회(공식미사 후) ③바비의 성모Cu(후 2시)
 2. 성화회: 17일 오후 6시.
 3. 성모회: 18일 오전 11시.
 4. 매월 넷째주일은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차주) 교무금 월납제와 주일헌함에 정성바랍니다.
- ☐ 지난주 봉헌금: 1,845,22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감 상 근

1. 예수 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완산여상 뒷산, 도시락 가족끼리 준비. 23일 전 10시30분(9시 학생미사는 없음)
 2. 아이스 행사: 22일 후 4시30분 협조단원도 모두 함께.
 3. 본당 여성 1일피정: 19일 9시출발. 회비-10,000원(본인 5,000원)
 4. 첫영성체 어린이 고백성사: 21일 후 5시, 세례식-21일 저녁 7시 30분, 첫영성체식-22일 저녁 7시30분.
 5. 평화 ME 가족 나눔: 17일 저녁 7시30분 제1회합실.
 6. 회의: 성모회-20일 12시, 빈첸시오-22일 전 10시, 울드레아-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7. 가정 축성미사: 우성105동101호 조남취(베드로)씨 18일 저녁 8시. 우성105동307호 정명희(아녜스)씨 22일 전 11시.
- ☐ 지난주 봉헌금: 1,214,560원 ☐ 교무금: 830,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유아 세례: 오늘 미사 후.
2. 울드레아: 오늘 미사 후, * 돼지저금통을 가져오세요.
3. 반모임: 18일(화) 오전-성원, 오후-윤남, 저녁-삼정1,3, 19일(수) 오전-화산1, 오후-신원, 20일(목) 오전-거성그린1, 오후-거성그린2.
4. 첫영성체: 22일(토) 오후 3시(어린이미사 중)
5. 꾸리아, 청년회: 다음주일 미사 후.
6. 야외미사: 다음주일.
7. 수녀원, 회합실 에어컨을 위한 모금에 협조를 바랍니다.
금주 전례: 정·결, 독서·봉헌: 육연숙, 강희연
차주 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이선주, 정준성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상 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 동 섭

- ◎ 오늘은 예수 부활 제6주일입니다(고산본당을 위한 2차 헌금)
1. 꼬미시움: 5월22일(토) 오후 3시. 2. 꾸리아: 26일(수) 오전 10시
 3. 성지 순례: 23일(일) 승천 대축일 교구내 성지 순례, 참가비-5,000원. 전신자가 꼭 참여합니다(지급 바로 신청하세요)
 4. 성모의 밤 행사: 5월29일 오후 8시30분(성모 성월동안 성모님께 초봉헌) 지난주 봉헌금: 1,214,770원 ☐ 교무금: 1,368,500원
 5. 첫영성체 교리: 5월1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국교생 3-6년)
 6. 성탄탄 예비지 모집: 입교식 5월30일(예비자 인도에 적극 협조합니다)
- * 구역반장님-구역모임 일정과 구역미사 미리 신청바람.
미사안내: 금주-승리의 여왕, 증거자.
차주-죄인들의 피난, 그리스도 어머니.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모임 안내: ①바자회 준비 모임-저녁미사 후,
②제대회-21일(금)10시 미사 후.
 2. 오늘 2차 헌금은 고산성당 100주년기념 성전신축을 위한 헌금입니다.
 3. 차주 예수 승천 주일은 바자회 준비관계로 야외미사는 없고 본당에서 미사봉헌이 있습니다. 4. 감사! : 익명-복주2두 효도 관치에 기증, 신축헌금 봉헌액 50,000원
차주모임-반석회, 바자회 준비 모임, 본당 ME 모임
금주 전례: 해설-김항발, 독서①교영표 ②박춘화
봉헌안내-문성재 부부, 송우석 부부,
차주 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함계영 ②홍성경
봉헌안내-서영건 부부, 김성택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1,278,290원 ☐ 교무금: 1,565,000원

* 수요일성서교실개강: 매주 수요일 오전10시 장소-전동성당 교육관, 문의-교구청 사목국